



되었어. 그러나 넌 아름다운 나비의 등장으로
 너의 진짜 꿈, 정말로 네가 그렇게 착았던
 꿈을 이렇게 되였을 때 내가 나의 꿈을 이룬 것처럼
 무척 기뻐한다!! 정말이야!!
 어찌하면 난 너처럼 친구들을 밝고 올라서고
 있는 중일수도 있어. 또 다른 친구들이 해비가
 꿈도없이 공황해왔었어. 그래서 하게 싫었나봐...
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
 나도 너처럼 나의 진짜 꿈을 찾을수 있을까? 그리고
 나도 다른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?
 하지만 난 믿어. 나도 언젠가는 나의 꿈을 찾을꺼야!!
 네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거든,
 그럼 나도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줄 나를 기다리며
 이만 줄일게. 안녕~



2020년 17월 30일

멋진 나비가 되고 싶은 소년아...

